대한상공회의소 報道資料	경기침체기 중소기업의 경영대응 실태조사
弘報室 : (02) 6050-3602~5	* 이 자료는 2/19(火)자 夕刊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- 통신, 인터넷 등은 2/19(火) 06:00부터

※ 문의 : 기업정책팀 강석구 팀장(6050-3461), 김현철 선임연구원(6050-3462)

中企 10곳 중 4곳 "최근 경영상황 어렵다"

- 대한상의 조사 ... '음식료·생활용품'(52%), '섬유·제지'(44%), '금속·철강'(43%) 순으로 어려워
- 경영애로사항 : '매출부진'(29%), '자금사정 애로'(25%), '수익성 악화'(19%), '인력난'(14%) 순
- 시급한 中企정책과제 : '자금지원'(40%), '판로개척지원'(24%), '규제애로해소'(15%) 순

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이 최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.

대한상공회의소(회장 손경식)가 최근 중소제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'경기침체기 중소기업의 경영대응 실태'를 조사한 결과, 응답기업의 37.7%가 최근 경영상황이 '나쁘다'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. 경영상황이 '좋다'는 기업은 15.0%였다. <'보통' 47.3%>

업종별로 살펴보면, '음식료·생활용품'(52.4%)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고, 이어 '섬유·제지'(43.9%), '금속·철강'(43.2%), '석유화학'(40.0%), '전기·전자'(31.8%), '기계·정밀기기'(30.2%) 등의 순으로 나쁘다는 기업이 많았다.

<표> 최근 업종별 중소제조업 경영상황

구분	나쁘다	보통	좋다
음식료·생활용품	52.4%	33.3%	14.3%
섬유·제지	43.9%	43.9%	12.2%
금속·철강	43.2%	45.9%	10.9%
석유화학	40.0%	53.3%	6.7%
전기·전자	31.8%	38.6%	29.6%
기계·정밀기기	30.2%	53.5%	16.3%

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"경기침체 장기화와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대응력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"며 "특히, 가계소득 감소시 가장 먼저 소비가 줄어드는 음식료·생활용품 업종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보인다"고 말했다.

경영상황이 어렵다는 기업에게 경기침체 지속에 대응할 여력이 남아있는지를 묻자 '이미 한계상황'이라는 답변이 5.3%, '올 상반기가 한계'라는 답변과 '올 하반기가 한계'라는 응답이 각각 24.8%, 29.2%에 달했다. 전체 응답기업 대비로 환산할 경우 중

소기업 10곳 중 2곳(20.3%)이 연내 한계상황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. <'내년 이후' 15.0%, '한계상황은 아님' 25.7%>

최근 겪고 있는 가장 큰 경영애로사항으로는 가장 많은 기업들이 '매출부진'(29.0%)을 꼽았고, 이어 '자금사정 애로'(25.0%), '수익성 악화'(18.7%), '인력난'(14.0%), '대외여건 불안'(13.3%) 등을 차례로 꼽았다.

한편, 경기침체기 중소기업의 경영대응 상황으로 응답기업의 65.6%가 '별다른 대응이 없다'고 답했고, '경기회복기를 대비해 공격적 경영을 하고 있다'는 답변도 22.7%에 달했으며, '침체기를 벗어나기 위해 소극적 경영을 하고 있다'라는 응답은 11.7%로 나타났다.

매출확대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'영업활동 강화'(50.0%)에 나선 기업들이 가장 많은 가운데, '신시장 개척'(35.3%), '신제품 출시'(23.3%), '생산력 증대'(18.3%) 등의 대책을 강구중인 것으로 조사됐다. <'할인판매' 5.0%, '기타' 1.0%, 복수응답>

자금사정 개선을 위해서는 '경비 절감'(56.0%), '금융권 대출'(23.7%), '판매대금 회수'(19.7%), '정책자금 대출'(18.7%)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했다. <'자산매각' 4.3%, '기타' 0.7%, 복수응답>

중소기업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응답기업들은 '자금지원'(39.7%)을 첫 손에 꼽았고, 이어 '판로개척지원'(24.3%), '규제애로해소'(15.0%), '인력확보지원'(10.7%), 'R&D지원'(10.3%)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.

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"2월말 출범하는 새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, 단기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타개를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과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정책수립이 병행돼야 한다"면서 "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국제화, R&D 역량 증대와 함께 가업상속공제 확대, 우수인력 확보, 벤처창업 활성화 등의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"고 밝혔다. (끝)

< 조사 개요 >

□ 조사기간 : 2013. 2/1 ~ 2/5

□ 조사대상 : 중소제조업 300개사

□ 조사방법 : 전화 및 팩스 조사